

“중·러, 미 인공위성 공격용 레이저무기 개발 중”



▲ 지난 2016년 중국 우주선 선저우 11호가 발사되는 장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CNN은 전날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입수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우주 방위체계에 도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인공위성을 직접 파괴하거나 탐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교란시키기 위한 레이저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중국은 2020년까지 저궤도 인공위성 센서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 레이저 무기를, 2020대 중후반까지 비광학 위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은 미 인공위성 탐지 센서에 대항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레이저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8년 7월에 자국 항공우주국에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으며 이는 인공위성 대항 임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항해 공중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가 저궤도 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하고 수년 내에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인공위성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센서도 장착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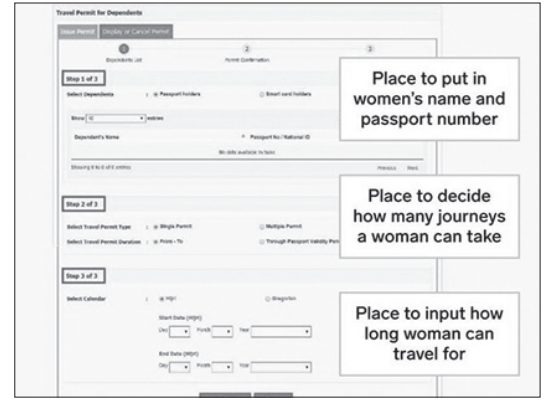
사우디의 '여성감시 앱' 퇴출 요구 확산

여성들의 해외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통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이 앱을 '퇴출' 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건 사우디 내무부가 2015년 출시한 행정서비스 앱 '앱서'다. 사우디 버전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구글에서만 100만 번 넘게 다운로드됐다.

앱서는 교통 위반 벌금을 내는 것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까지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들만을 위한 기능이 존재한다. 아내와 딸, 여형제의 해외여행을 허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앱을 통해 여성 가족의 해외여행 기간과 장소, 이용 공항을 설정할 수 있다. 여성 가족이 공항에서 여권을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알림 기능도 있다.

사우디는 후견인법에 따라 여성은 반드시 남성 가족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여성들은 후견인 허락 없이 결혼은 물론 여권 발급도, 해외여행도 할 수 없다.



▲ 사우디 내무부가 출시한 행정서비스 앱 '앱서'

앱서 논란은 지난 11일 미국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가부장제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앱 퇴출을 요구하면서 불이 붙었다.

쿡 CEO는 공영 라디오방송 NPR 인터뷰에서 앱서에 관한 질문을 받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병', '죄악'이라고 표현한 한 종교 앱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WHO, 브라질 방문 앞서 황열병 백신 접종 권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브라질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황열병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WHO는 성명을 통해 "브라질 내에서 황열병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은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며 "황열병 백신은 접종 후 열흘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방문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황열병 발병 위험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7개 주(브라질리아 연방특구 포함) 가운데 21개 주에 달한다. 사실상 브라질 전국이 발병 위험 지역인 셈이다.

앞서 상파울루 주 보건당국은 지난 8일 상파울루 시 남부지역에 있는 동물원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황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원숭이를 격리 수용한 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동물원의 다른 원숭이들도 추적 감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유행하는 황열병은 아르보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로, 이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열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발열, 오한,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두통, 근육통 등 증세가 나타난다. 심해지면 고열, 황달, 출혈 등이 진행되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중증 환자의 20~50%가 사망할 수 있다.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